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12월 금통위, 현 기준금리(2%) 동결
- 이 슈 : (경제)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산업) 국내 고정투자 부진의 중장기적 원인과 시사점

■ 노후생활

- 테 마 : 2020년 인구 효과에 따른 소비구조 전망
- 세 심 록 : 갈등을 해소하는 '비폭력대화(NVC)'의 힘
- 북 리 뷰 : 21세기 자본론

□ 동향

○ 12월 금통위, 경기침체 우려에도 2% 현 기준금리 동결

- 디플레 우려와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차례의 금리인하 효과의 점검과 가계부채 급증 등의 결과를 고려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
 - 한은총재는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및 경제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
 - 동시에 지난 두 차례의 금리인하 효과 점검과 가계부채 부작용 등 금융안정 확보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리인하를 유보

○ 국내 경기의 심리지표 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비관적

- 한은은 최근 국내 경기는 심리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10월중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의 개선 가능성 미약
 - 11월중 수출은 영업일수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일평균 기준으로는 전년동월 수준을 상회(11월중 수출(470억달러)은 전년동월대비 1.9% 감소)
- 앞으로 국내경기는 미국 경기회복,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및 소비심리 회복 지연,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11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0% 상승(10월 1.2%))
 - 10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기록, 경상수지는 당분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28	12/12
실물지표	GDP성장률(%)	2.3	3.0	0.9	0.9	0.6	0.9	-	-	-		
	제조업생산지수(%)	0.7	-1.6	1.8	0.7	0.3	1.2	-2.7	2.0	-3.4		
	소비자물가지수(%)	2.2	1.3	1.1	1.1	1.6	1.4	1.4	1.1	1.2		-
	실업률(%)	3.2	3.1	2.8	4.0	3.7	3.3	3.3	3.2	3.2		
	경상수지(억달러)	508.4	798.8	248.4	151.3	241.3	226.6	73	76	90		
금융지표	국고채(3년)(%)	3.13	2.79	2.90	2.87	2.82	2.50	2.54	2.41	2.24	2.14	2.14
	원/달러(원)	1,126.8	1,095.0	1,062.1	1,069.0	1,029.6	1,026.2	1,025.4	1,033.2	1,060.3	1,105.7	1,110.4
	코스피지수(P)	1,930.4	1,960.5	2,009.3	1,946.1	1,993.2	2,041.9	2,060.9	2,042.7	1,942.8	1,970.3	1,960.8

주 :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12/1~12의 평균값임.

□ 이슈 : (경제) 한국경제의 對중국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¹⁾

○ 심화되는 한중 경제관계

최근 한중 원-위안 직거래 개시, 상호 교역량 확대 등 한중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양국 간 경제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수출 대상국일 뿐 아니라 국내 여행수지 흑자 최대 기여국인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에 따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 국내경제의 對중국 경제의존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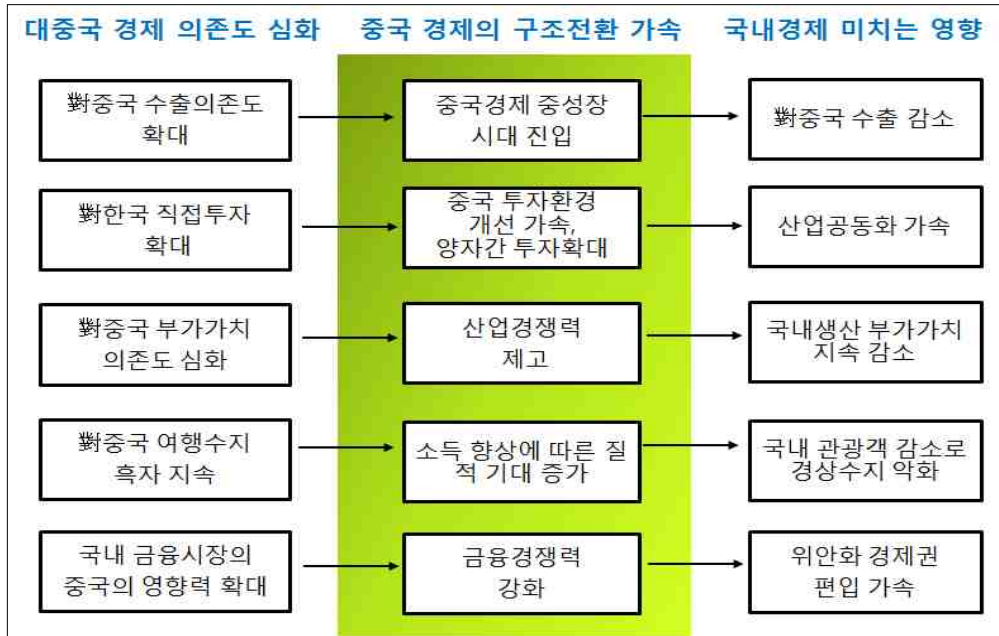
국내경제의 對중국 의존도를 교역, 직접투자, 부가가치, 여행수지, 금융시장 등 5대 부문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소재·부품의 3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對중국 수출비중이 1992년 3.5%에서 2013년 26.1%로 급증, 중국이 2004년부터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2000~2013년 사이 우리나라의 전체 소재·부품 수출 총액 중 對중국 수출 비중은 13.2%에서 35.3%로 3배 이상 급증하였다. 둘째, 중국의 對한국 투자가 서비스업에만 90%가 몰리고 있다.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1992년 100만 달러에서 2013년 약 4억 8,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투자업종별로 보면 2013년 현재, 對한국 전체 직접투자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9.4%, 90%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투자가 전환되고 있다. 셋째, 국내 제조업의 對중국 부가가치 의존도가 10.3%로 확대되었다. 1995~2011년 사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1.8%에서 10.3%로 대폭 증가한 반면, 한국내 자체 조달 비중은 62.8%에서 56.6%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1년 기준 섬유직물 분야의 對중국 부가가치 의존도는 20.9%로 가장 높고, 전기·광학기기 및 화학 분야도 각각 12.8%, 12.3%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중국 관광객의 국내 유입 가속에 힘입어 인해 국내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속도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미국, EU 등에 대한 대규모 적자로 인해 적자폭이 추세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수지를 구성하는 여행수지에서 2013년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20.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이 우리의 최대 여행수지 흑자 기여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속도를 완화시키고 있다. 對중국 서비스수지 흑자를 제외하면 국내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3년 기준으로 114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전체 경상수지의 14.3%에 이른다. 다섯째,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중 위안화 예금 비중이 33%로 급증하고 있으며,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의 중국자금 비중도 27%에 이르고 있다. 최근 한중간 통화스와프 쿼터 확대,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합의 등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로 국내 거주자 위안화 예금이 217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중국자금이 2014년 9월까지 누적기준으로 3조 2,250억 원에 달하는 등 중국 외화 및 자금의 국내 유입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경제의 對중국 의존도는 추세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중성장 시대 진입, 산업경쟁력 제고, 소득향상 등 구조적인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14-48호 (2014. 12. 05) 재구성.

국내 제조업의 對中 투자 러시(rush)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는 물론, 중국 산업경쟁력 강화로 인한 對중국 부가가치 의존도 심화 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서비스수지의 지나친 對中 의존 및 국내 금융시장의 위안화 경제권 연동화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 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최근 對중국 경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적극 활용하되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현재 발효 중인 한·미, 한·EU 등 FTA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국 이외의 대체시장을 적극 개발하는 등 국내 산업 및 경제의 새로운 동력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투자규제 완화와 친기업정서 확산 등을 통해 국내 산업공동화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소재·부품 국산화 노력 가속 등을 통한 자체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관광상품의 고부가가치화·다양화 등을 통해 중국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입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다섯째, 국내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안화 교환편이성 제공 등으로 교역 및 인적교류 확대 기회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천용찬 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정민 선임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 이슈 : (산업) 국내 고정투자 부진의 중장기적 원인과 시사점²⁾

○ 개요

금융위기 이후 국내 고정투자 증가율이 급락함에 따라 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약 10년 주기의 중기 사이클인 주글라(Juglar) 사이클 상 2015년에도 국내 고정투자는 침체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고정투자/GDP 비중 역시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투자 부진의 중장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 국내 고정투자 부진의 중장기적 원인

국내 고정투자가 중장기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원인은 우선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주력 제조업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며 전체 국내 투자를 견인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IT 부문을 제외하고 뚜렷한 성장 산업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IT 부문도 최근들어 성장세가 정체되며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는 모습이다. 둘째, 설비투자의 수급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생산능력증가율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설비투자조정압력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더욱이 대내외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요 측면에서도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국내 1인당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PPP 기준 1인당 GDP가 약 12,000달러 이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PPP 기준 1인당 GDP는 2013년 31,016달러로 향후 건설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대내외 경제의 부진한 회복세에 따라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제조업 경기 전망 BSI의 경우 여전히 100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들어 하락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2015년에는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유럽 경기부진 장기화,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 역시 대내외 수요 부족과 더불어 불확실한 경기 전망을 설비투자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 시사점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 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신성장 부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장 육성과 사업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요 창출 노력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균형 성장 및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조규림 선임연구원(2072-6240, jogyurim@hri.co.kr)

2)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국내 고정투자 부진의 중장기적 원인과 시사점” 14-43호 (2014. 12. 03.) 재구성.

□ 테마 : 2020년 인구 효과에 따른 소비구조 전망³⁾

< 요약 >

○ 개요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출산율 하락, 평균수명 연장,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등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다. 개인의 소비 패턴은 생애 주기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는 향후 소비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향후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를 추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인구 효과에 따른 소비구조 전망

가구주 연령의 변화에 따른 인구효과와 가계의 소득 변화에 따른 소득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미래에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하였다.

(소비지출 비중 증가 품목) 인구효과와 소득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 첫째, 주거·수도·광열은 고령화 영향으로 소비지출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층은 소득에서 주택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고 에너지 사용도 상대적으로 많아 인구 고령화는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보건은 인구의 평균 연령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 지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셋째, 의류·신발, 교통,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은 고령화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겠지만 향후 가계들의 소득 증가는 이들에 대한 소비 지출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비지출 비중 감소 품목) 소비지출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첫째, 교육은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재화이지만 인구구조상 학령인구의 감소 효과가 이를 능가하여 지출 비중이 감소할 것이다. 둘째,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등은 인구 고령화가 지출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소득요인에 따른 감소 효과가 이를 능가하여 지출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셋째,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의 지출 비중은 외식과 문화생활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 가구의 특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통신비는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가 동시에 지출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계의 주거비, 보건비 등의 부담이 늘고 재화의 수요 변화로 새로운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보건비, 주거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 도모,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³⁾ 현대경제연구원, '2020년 인구 효과에 따른 소비구조 전망', VIP REPORT 14-45호, 2014년 12월 15일.

□ 개요

○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며 가계의 소비구조도 빠르게 변화해 갈 것으로 보임

-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 인구가 경제의 핵심 소비층으로 등장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출산율 하락, 평균수명 연장,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등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⁴⁾에서 고령사회로는 17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는 9년이 소요되어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 되어 가고 있음

- 개인의 소비 패턴은 생애 주기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는 향후 소비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연령대별로 소비의 상품별 구성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고령인구의 소비비중이 높은 품목은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이들의 소비가 적은 부분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본 보고서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향후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를 추정하고 시사점을 도출

<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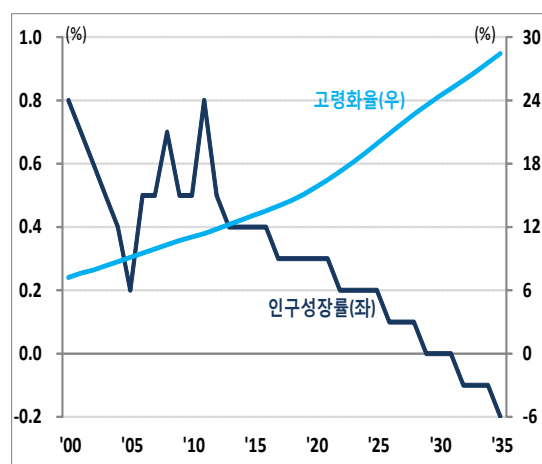
	도달년도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미국	1942년	2014년 (72년)	2030년 (16년)
영국	1929년	1975년 (46년)	2025년 (50년)
독일	1932년	1972년 (40년)	2008년 (36년)
프랑스	1864년	1978년 (114년)	2019년 (41년)
일본	1970년	1995년 (25년)	2006년 (11년)
한국	2000년	2017년 (17년)	2026년 (9년)

자료 : 통계청, UN.

주 1) %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

주 2) 괄호 안은 소요년수.

< 고령화율 및 인구성장률 전망 >



자료 : 통계청.

주 :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총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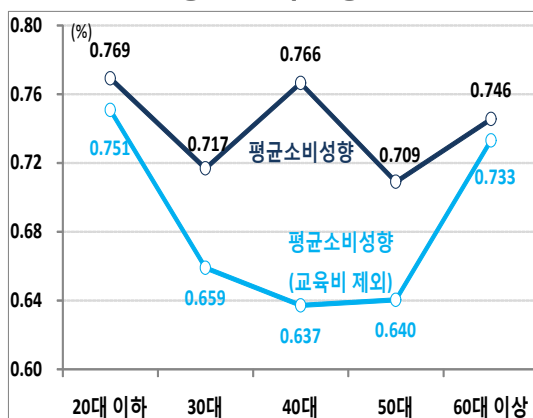
4)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 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

□ 연령별 소비구조 특성

○ 고령 가구는 식료품, 주거, 보건 등 필수재의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중장년층은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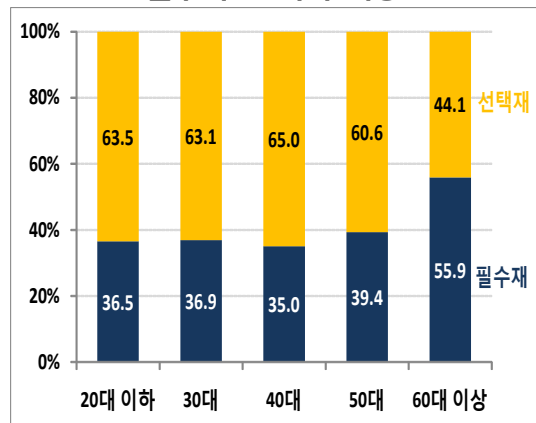
-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고령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 고령층의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차이는 크지 않았음
 - 개인은 근로 세대일 때 소득보다 소비를 적게 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에 그 자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중장년층보다 높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출 부담이 커 중장년층의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고령층은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못해 평균소비성향이 비교적 낮게 나타남
- 60대 이상 고령층은 소득 여건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선택적 소비의 비중이 낮은 반면 필수재의 소비 비중이 높음⁵⁾
 -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필수재의 소비 비중이 55.9%로서 매우 높은 반면 선택재 비중은 44.1%로 낮았음
 -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은 선택재의 소비 비중이 60%대로 높았으며 필수재의 소비 비중은 30%대임

< 연령별 평균소비성향(2013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 연령별 필수재, 선택재 비중(2013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5) 필수재(Necessities)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비중이 감소하는 재화. 선택재(Luxurious)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비중이 증가하는 재화. 구체적으로 필수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보건, 통신 등이며 선택재는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통,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임.

- **60대 이상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비, 보건 등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타 연령층에 비해 육체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의 특성으로 의료에 관련된 지출 비중이 높았음
 - 고령층 가구는 주거·수도·광열비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았으며 교통, 교육, 의복에 관한 소비 지출은 적었음
 - 고령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30~50대 가구는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의식주에 관련된 소비 비중은 낮았음**
 - 30~50대 가구는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40대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전체 소비 지출 중 16.9% 이었음
 -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비 등 의식주에 관련된 소비 비중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20대 이하 가구는 교통, 음식·숙박에 대한 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교통에 관련된 지출이 두드러지게 높았으나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20대 이하 가구는 상대적으로 잦은 외식으로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는 낮은 반면 음식·숙박의 소비 지출 비중이 높았음

<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2013년) >

	(%)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	14.2	9.6	12.8	12.8	13.5	21.0
주류·담배	1.2	1.3	1.2	1.0	1.3	1.4
의류·신발	6.7	8.0	7.4	6.8	6.9	5.4
주거·수도·광열	11.6	13.3	10.9	9.6	11.5	17.1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0	4.8	5.1	3.5	3.5	4.2
보건	6.8	5.5	6.0	5.5	6.4	11.7
교통	12.2	17.2	13.4	11.8	13.1	9.6
통신	6.1	6.8	5.9	6.2	6.7	4.8
오락·문화	5.6	6.5	6.6	5.6	5.1	5.0
교육	10.5	2.4	8.1	16.9	9.7	1.7
음식·숙박	12.9	15.4	13.3	13.1	13.7	10.1
기타	8.2	9.1	9.2	7.2	8.7	8.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 인구 효과에 따른 소비구조 전망

1) 인구구조 전망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 가구가 늘고 1인 가구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연장, 출산율 저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등으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음

· 한국은 2015년 고령인구 비중이 13.1%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의 초입에 와 있으며 2017년(14.0%)에는 고령사회 진입, 2026년(20.8%)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

- 이에 따라 향후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60대 이상의 가구로 구성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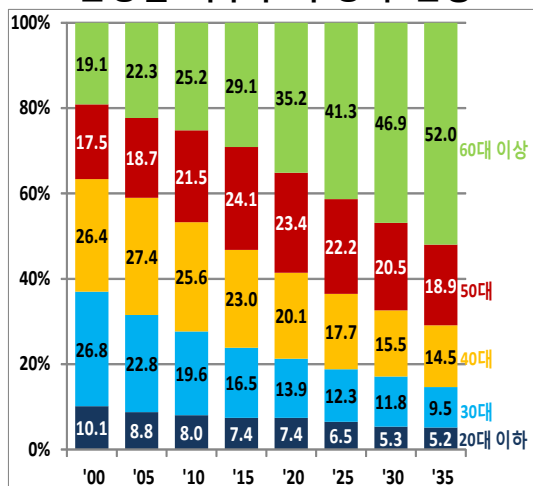
· 연령별 가구주 구성비는 60대 이상 가구가 2014년 28.1%에서 2020년 35.2%, 2030년에는 46.9%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30~50대 가구는 2014년 64.5%에서 2020년 57.4%, 2030년 47.8%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한편 가구주 중 1인 가구 비중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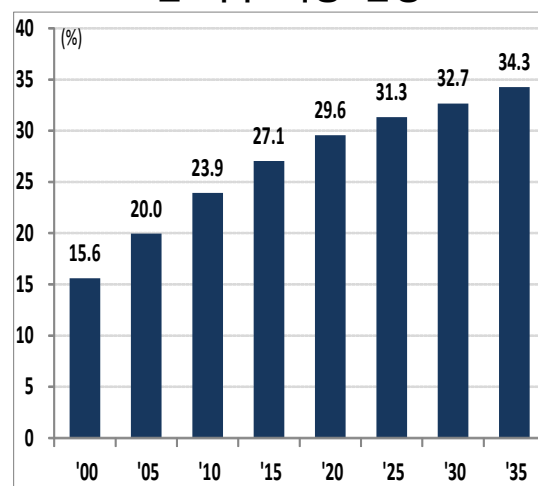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4년 26.5%, 2020년 29.6%, 2030년 32.7%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연령별 가구주 구성비 전망 >



자료 : 통계청.

< 1인 가구 비중 전망 >



자료 : 통계청.

2) 소비구조 전망

① 소비 전망 모형

○ 인구구조와 소득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화의 수요를 전망

- 분석모형은 OECD(2005년)⁶⁾의 재화의 수요 전망(Projected demand)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가계주 연령별로 처분가능소득, 평균소비성향, 품목별 소비 비중과 가구원수 전망, 가구수 전망 등을 고려하여 각 재화의 수요 변화를 전망
 - 추정 기간은 현재부터 2020년까지이며 2013년 대비 2020년 재화의 소비지출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상

< 재화의 수요전망 분석모형 >

$$\text{품목별 수요}_t = \sum_i (\text{처분가능소득})_{it} \times \left(\frac{\text{소비}}{\text{처분가능소득}} \right)_i \times \left(\frac{\text{품목별 소비}}{\text{소비}} \right)_{it} \times \text{가구수}_{it}$$

① 소득 ② 평균소비성향 ③ 품목별 소비 비중 ④ 가구수

- 가구주 연령의 변화에 따른 인구효과와 소득의 변화에 따른 소득 효과를 추정
 - 각 재화의 소득탄력성을 이용하여 소득 변화에 따른 품목별 소비 비중의 변화를 추정하고 가구주 연령 변화 등 인구효과를 고려
 - 인구효과란 가구주 연령 변화가 품목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인구고령화로 고령 가구의 소비 비중이 높은 재화는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이들의 소비가 적은 부분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소득효과란 가구의 소득 변화가 품목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가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선택재의 소비 비중은 늘지만 필수재의 소비 비중은 감소
- 인구효과와 소득효과를 결합하여 미래에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
 - 재화의 특성에 따라 인구효과와 소득효과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이 상이하므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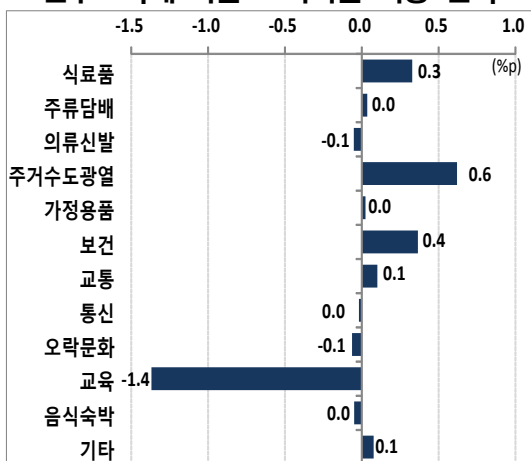
⁶⁾ OECD(2005), "The Impact of Ageing on Demand, Factor Markets and Growth".

② 소비구조 전망

○ 인구효과만을 고려하면 주거·수도·광열, 보건, 식료품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득효과만을 고려하면 교통, 교육, 의류·신발 등 지출 비중이 늘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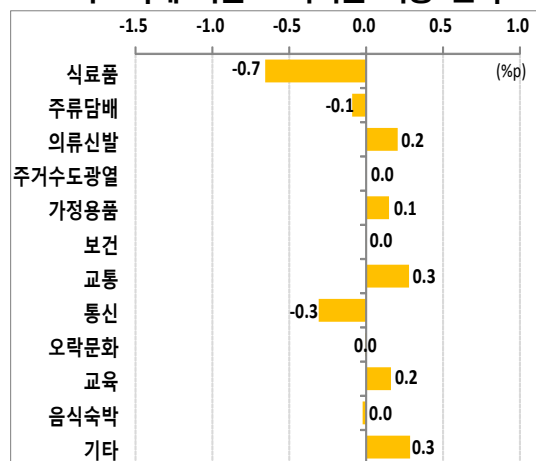
- 인구효과만을 고려하면 주거·수도·광열, 보건, 식료품 등의 비중은 증가하지만 교육의 경우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 고령층일수록 에너지 소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커 주거·수도·광열비의 소비지출 비중은 0.6%p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건강에 관련된 지출이 많은 고령층의 특성으로 보건비에 대한 지출은 0.4%p 증가하고 식료품의 지출 역시 0.3%p 늘 것으로 보임
 - 학령인구⁷⁾의 감소로 교육비 지출의 비중은 -1.4%p 감소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오락·문화(-0.1%p), 의류·신발(-0.1%p)에 대한 지출도 줄 것으로 보임
- 소득효과만을 고려하면 교통, 교육, 의류·신발 등 선택재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식료품, 통신 등 필수재의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소득 증가로 교통, 교육, 의류·신발 등 소비지출은 2013년과 비교하여 2020년 각각 0.3%p, 0.2%p, 0.2%p 늘어날 전망
 - 이에 반하여 식료품, 통신 등의 소비지출 비중은 2013년과 비교하여 2020년 각각 0.7%p, 0.3%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인구효과에 따른 소비지출 비중 변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인구효과만을 고려한 2020년과 2013년 소비비중 변화.

< 소득효과에 따른 소비지출 비중 변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소득효과만을 고려한 2020년과 2013년 소비비중 변화.

7) 교육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 **인구효과와 소득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면 소비지출 비중은 주거·수도·광열, 보건, 교통,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은 증가가 예상되며, 교육,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오락·문화, 음식·숙박, 통신 등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고령층은 소득에서 주택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고 에너지 사용도 상대적으로 많아 인구 고령화는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
 - 주거·수도·광열은 2013년에 소비지출 비중이 11.6%에서 2020년 12.2%로 0.6%p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주거비 등 의식주 관련 지출 비중은 낮아지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주거비 등 지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
 - **인구의 평균 연령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지출은 빠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보건의료는 2013년에 소비지출 비중이 6.8%에서 2020년 7.2%로 0.4%p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의류·신발, 교통,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 관련 재화는 고령화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겠지만 향후 가계들의 소득 증가는 이들에 대한 지출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
 - 의류·신발, 교통,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의 소비지출 비중은 2013년 대비 2020년에 각각 0.2%p, 0.2%p 0.4%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 저하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계의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크게 감소할 전망**
 - 교육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재화이지만 인구구조상 학령인구의 감소 효과가 이를 능가하여 전체 지출 비중이 감소
 - 교육비 비중은 2013년 10.5%에서 2020년 9.3%로 1.2%p 감소하여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는 인구 고령화가 지출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소득요인에 따른 감소 효과가 이를 능가하여 지출 비중은 줄 것으로 예상**
 - 식료품의 경우 대표적으로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품목이며 엔겔계수⁸⁾가 이를 나타냄
 -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지출 비중은 2013년 14.2%에서 2020년 13.9%로 0.3%p 감소하며, 주류·담배는 동기간 1.2%에서 1.1%로 0.1%p 줄 것으로 보임
- **문화생활이 적고 외식보다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을 선호하는 고령 가구의 특성으로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의 지출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오락·문화의 지출 비중은 2013년 5.6%에서 2020년 5.5%로 0.1%p 감소하며, 음식·숙박은 동기간 12.9%에서 12.8%로 0.1%p 줄 것으로 보임
- **통신비는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가 동시에 지출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통신비의 경우 2013년에 소비지출 비중이 6.1%에서 2020년 5.7%로 0.4%p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

(%, %p)

	2013년	2015년(E)	2020년(E)	증감
식료품·비주류음료	14.2	14.0	13.9	-0.3
주류·담배	1.2	1.2	1.1	-0.1
의류·신발	6.7	6.8	6.9	0.2
주거·수도·광열	11.6	11.9	12.2	0.6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0	4.0	4.1	0.1
보건	6.8	6.9	7.2	0.4
교통	12.2	12.5	12.6	0.4
통신	6.1	6.0	5.7	-0.4
오락·문화	5.6	5.6	5.5	-0.1
교육	10.5	9.7	9.3	-1.2
음식·숙박	12.9	12.9	12.8	-0.1
기타	8.2	8.3	8.5	0.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2) 증감은 2020년과 2013년 비중 차이.

8) 엔겔계수란 가계소비지출 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소비 지출의 비중.

□ 시사점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보건비, 주거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 도모,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의 대책이 필요**
 - **소비지출의 품목별 구성 변화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곳으로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특히 노동은 자본에 비해 산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노동력의 산업 간 이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정부는 산업별 노동수급전망을 통하여 노동력의 산업 간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도모
 - **인구 고령화로 보건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고령 가구의 보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정책 도입이 필요**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빈곤층 해결을 위한 제도 수정이 필요
 -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
 - 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 주택의 활성화 등을 통한 전월세 가격 안정, 이자 비용 부담 축소 등으로 주거유지비 부담을 완화
 -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에 대해 임차인 보조금 확대, 저리 용자 자금 확대, 주거 관련 난방비에 대한 유류세 감면 등을 고려해 볼 필요
 - **고령화가 진전되면 향후 경제성장률이 고령친화산업 산업의 성장률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 분야의 신성장 산업 육성에 주력**
 -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소득증가와 소비활력 증대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노력
 - 고령친화제품인 기기용품, 주택, 요양서비스, 금융자산관리서비스, 정보기기 및 서비스, 여가관광 및 건강지원서비스 분야 등을 육성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2072-6211, ck1009@hri.co.kr)

□ 세심록(洗心錄)

○ 갈등을 해소하는 '비폭력대화(NVC)'의 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은 사람과 다른 동물들을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로퀼스(Homo Loquens)'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사용 능력을 잘 사용하면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증오와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1943년 디트로이트에서 발생한 인종 갈등으로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참극을 경험한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을 높일 수 있는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NVC)'라는 대화방법을 제창하였다.

NVC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의 구체적 행동을 '관찰(observation)'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가 무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끝나기 전에 네가 전화를 끊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관찰한 바에 대한 자신의 '느낌(feeling)'을 표현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기쁨, 슬픔, 즐거움, 아픔, 무서움, 짜증 등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포착한 느낌이 내면의 어떤 '욕구(need)'와 연결되는지 찾아낸다. 존중받고 싶다면, 깨끗한 환경을 원한다면 하는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넷째,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request)'한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더러운 양말이 TV 옆에 굴러다니는 걸 보면(관찰) 엄마는 짜증이 난다(느낌). 여럿이 함께 쓰는 방은 좀 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이 나는 좋거든(욕구). 양말 뭉치를 세탁기에 넣어 줄 수 있겠니(부탁)?"

현재 전 세계 65개국에 NVC 센터가 설립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NVC를 훈련하면서 분노와 갈등이 해소되고 소통과 교감능력이 향상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어려울 것도 없고 손해 볼 일도 아니니 지금 당장 연습해보도록 하자.

“폭력이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쓰는 것이다.”

- 사르트르(1905-1980, 프랑스 철학자)

□ 복리뷰 : 21세기 자본론⁹⁾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는 22살에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분배문제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1993년에서 1995년까지 미국 MIT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일했고 이후 프랑스로 복귀해 The Paris School of Economics를 세우는데 참여했으며 현재 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있음.

- 현재 자본주의는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 문제로 인해 체제 전반에 위기 발생
 - 19세기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자본에 대한 수익률(rate of return on capital)(r)이 산출이나 GDP증가율(g)을 크게 초과하는 현상이 재현
 - 민주사회의 기초가 되는 능력중심주의(meritocracy)의 가치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도저히 감내해낼 수 없는 불평등이 초래
- β (=자본/국민소득)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장기적으로 700%대 예상
 -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 β 는 1910년대까지 700%에서 1950년대 20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현재 400% 이상
 - 자본은 기존 자본에 대한 수익률(r)과 소득 중 소비하지 않은 부분 곧, 저축률(s)에 의해 영향 받는데 장기적으로 r은 4~5% 그리고 s는 평균적으로 10% 수준
 - 세계 GDP 성장률(g)은 인구와 생산성 증가율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20세기 중후반 4%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가장 큰 이유는 인구증가율의 감소
 - 장기적으로 r이 4~5%를 유지하는 동안 g는 1.5%수준으로 수렴($r > g$)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β 가 지속 상승
- 20세기 중반 자본의 시장가치 하락 유도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이 자본소득을 축소시키고 적극적인 근로소득 보전이 소득분배를 개선했지만 현재는 정반대 상황
 - 20세기 초중반 β 가 감소했던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재산과 상속 그리고 소득에 대한 강력한 누진과세를 적용했고 유럽 국가들에서는 복지국가 완성
 -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개혁은 민간소유 자본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키면서 자본소득을 크게 늘려 β 증가와 함께 소득분배가 왜곡되기 시작
- 전 세계적인 자본에 대한 과세만이 β 를 낮추고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소득의 대부분을 자본으로부터 얻는 최상위소득자에 돌아가는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자본의 자유로운 국경이동은 전 세계국가들의 공통된 행동을 요구하며 모든 국가들이 자본과 자본소득의 시장가치를 낮추는(β 를 낮추는)정책에 대한 논의 절실

⁹⁾ Piketty, Thoma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잠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